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창세기 17:1-5
2026 년 10 월 11 일 오전 11 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 주여 도우소서 >

창세기 16 장 과 17 장 사이에는 13 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창 16:16-17:1 상반절). 창세기 16 장 끝절에서 아브람의 나이는 86 세, 창세기 17 장 첫절에서 아브람의 나이는 99 세입니다. 창세기 16 장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뜨리고 다시 나타나신 것은 아브람의 나이 99 세 때였습니다. 그 13 년 동안 아브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아브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창 17:3).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한편, 사래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훗날 사라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을 존중한 여인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벧전 3:6). 아브라함은 세 명의 손님 접대를 위하여 장막에서 쉬고 있는 사라에게 일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창 18:6). 세 스아는 열 오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만나 한 오멜이 한 사람의 하루 양식이었으니, 세 스아는 열 사람의 하루 양식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세 사람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30 끼를 준비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양입니다. 허나 사라는 너무 많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1. 세월이 흐를수록 성숙해지는 사람

또한 13 년 전에는 남편을 원망하며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창 16:5). 그런데 이제는 사라가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창 18:12). 이처럼 성경은 사라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을 존중한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99 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풍성하고 놀랍습니다. 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2 절). ②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4 절). ③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6 절). ④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7 절). 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8 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1 하반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하라'는 말씀은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살도록 힘쓰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10 절).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11 절). 할례는 마치 결혼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반지를 끼는 것은 배우자가 있다는 표징입니다. 그러나 결혼반지를 끼었다고 해서 결혼생활의 모든 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으면서 결혼반지만 끼고 있다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의 표징을 지니는 것뿐 아니라, 그 언약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첫째 요구는 무시한 채,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렘 4:4).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속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더라도 악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성경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할례만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 2:28-29). 참된 할례는 단순히 육신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리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나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 1:28).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받았지만, 포도주에 취하여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삼하 22:24).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의 의미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좁은 의미의 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잘못까지 포함한다면, 누구도 모든 허물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병든 남편을 오랫동안 수발하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정성껏 간호하는 할머니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뜻밖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남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몸은 남편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원망과 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미움을 키우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헌신을 보고 칭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13).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창 8: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마음에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품고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흠 없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 완전을 이루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 2:15). 여기서 '흠 없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요구하신 '완전함'과 의미상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며,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완전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도 주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5 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사래의 이름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15 절). 아브람(אַבְרָם)은 아브라함(אַבְרָהָם)이 되었고, 사래(שָׂרַי)는 사라(שָׂרָ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의 변화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헤'(ה)가 추가되었고, 사래가 사라로 바뀌면서도 끝 글자가 '헤'(ה)로 바뀌었습니다. 이 '헤'는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 있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주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교회 소식란 맨 아래, 온라인 헌금용 QR

code 옆에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네 글자, יהוה로 기록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므로 요드(י), 헤(ה), 와우(ו), 헤(ה)의 순서입니다. 이 네 글자 가운데 '헤'가 두 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이름에도 들어 있는 '헤'라는 글자가 그들의 이름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왔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은 아름다운 상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행함의 완전조차 이루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올바르게 행동하더라도 마음속의 미움과 탐욕까지 다스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완전해지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